

괴테이후 색채에 대한 철학적 접근

- 헤겔, 쇼펜하우어, 비트겐슈타인의 색채사상을 중심으로 -

최재석

한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색채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오랫동안 철학자의 관심사가 되어왔을 만큼, 색채를 논하는 것은 어려운 난제였다. 근대기인 1672년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은 『빛과 색의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과 이론을 거쳐 『광학』(1704)이라는 논문에서 색채를 「빛의 분할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 논문은 오랫동안 색채이론의 근간이 되어왔다. 뉴턴 이후 100여 년 동안 그의 이론을 뒤집는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1810년 괴테의 『색채론』을 계기로 ‘색채는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갖게 된다.

뉴턴이 색채를 「빛의 분할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정의한 데 대하여, 괴테는 색채를 「눈의 감각적인 현상」으로 대립되는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이후 오랫동안 뉴턴의 색채이론이 재평가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괴테의 등장으로 철학자, 의사, 화학자, 생리학자, 심리학자, 문학자, 신지학자, 그리고 교육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과학이외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만큼 괴테의 색채이론은 문학서를 넘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인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괴테 색채이론의 다양한 영향 중, 특히 괴테 이후의 철학자들—헤겔, 쇼펜하우어, 비트겐슈타인—이 괴테의 색채이론을 고찰하고, 그들 자신이 ‘색채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괴테이후 색채론의 다양한 철학적 접근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괴테, 색채론, 헤겔, 쇼펜하우어, 비트겐슈타인

† 교신저자_최재석 e-mail: jschoi@halla.ac.kr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색채는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근대 이후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이 『광학—빛의 반사, 굴절 및 색채에 관해서—』(1704)를 발표하면서 색채를 「빛의 분할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 논문은 오랫동안 색채이론의 근간이 되어왔다. 그러나 뉴턴 이후 색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계기가 된 것은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가 『색채론』(1810)을 통하여 뉴턴의 색채이론을 부정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괴테의 색채이론은 물리적 측면보다는 철학, 심리학, 생태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괴테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 예를 들면 헤겔, 비트겐슈타인, 쇼펜하우어, 슈타이너, 카츠 등의 색채사상이다. 본 논문은 괴테 이후의 철학자의 색채사상을 분석함으로써, 괴테 이후 색채론의 다양한 철학적 접근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고찰

괴테의 색채연구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장희창, 이윤민, 최재석에 의한 4편의 논문이 있다. 앞서 제시한 괴테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의 색채사상과 관련된 국내 논문은 매우 적다. 박병철과 이승종에 의해 2편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국내에서의 철학적 색채관련 연구는 괴테와 비트겐슈타인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괴테와 비트겐슈타인 외에도 헤겔, 쇼펜하우어, 카츠, 슈타이너 등의 철학자, 그리고 화가로서 철학적 색채론을 발표한 칸딘스키, 다너 등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철학자의 색채론 간의 비교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괴테와 비트겐슈타인, 쇼펜하우어와 비트겐슈타인, 괴테와 비트겐슈타인 등의 비교가 자주 다루어져, 지금까지와 다른 각도에서 색채를 분석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색채연구 논문 및 저서를 바탕으로, 괴테 이후 색채론의 변화를 검토하고, 앞서 제시한 헤겔, 쇼펜하우어, 비트겐슈타인 등, 세 철학자의 정신에 나타난 색채사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색채이론에 관한 기존관념—색채는 물체의 속성내지는 광학적 현상이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색채론의 변화

2.1 괴테 이전의 색채론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과 조우하는 최초의 경험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지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적 반응은 색채현상에 집중되어 있고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색채를 접할 때에는 누구나 색채론자가 되어 있을 정도이지만, 실제 색채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어려운 난제였다.

고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색채를 물질색으로 규정한 이래, 색채 현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뉴턴이 영국의 「왕립협회철학연보」에 발표한 「빛과 색의 새로운 이론」(1672)이라는 연구로, 이는 종래의 색채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빛의 반사, 굴절 및 색채에 관해서」라는 부제목을 붙여 발표한 뉴턴의 『광학』은 그때까지의 색채를 보는 관점을 일시에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뉴턴이, 색채를 「빛의 속성」으로 규정한 데카르트의 「광학연구」를 뒤집은 것은 바로 『광학』이라는 연구였다. 뉴턴은 빛에는 색이 없으며 색채는 「굴절률이 다른 광선에 기인하는 감각현상」이라고 단정하였다. 즉, 뉴턴에 의하면 빛 자체에는 색이 없고 빛을 굴절시켜 분리함으로써 빛이 생성되고, 역으로 모든 광선을 혼합하면 흰색 빛(백색광)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뉴턴적 색채규정은 색채가 정량적이며 물리적인 속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과학주의적 색채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역사 이래 색채현상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뉴턴의 『광학』과 괴테의 『색채론』과는 100년 가까운 시간차를 가지고 있다. 그 사이에 의

사 토마스 영(Thomas Young, 1773~1829)이 「색각 삼원색설」(1801)을 발표하였으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색채를 광선의 속성(뉴턴)으로 보거나 신경작용의 속성(토마스 영, 헤름호르츠)으로 보았던 근대과학의 객관주의적 색채론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괴테인 것이다. 괴테는 색채를 「감각」의 현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뉴턴의 색채론과 전면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2.2 괴테의 『색채론』

괴테의 『색채론』(1810)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색채현상을 추적하는 이론서인 「교시편」, 근대주의 과학적 색채연구의 원전에 해당하는 뉴턴의 『광학』을 비판하는 「논쟁편」, 그리고 색채 연구를 고대로부터 18세기까지 역사를 추적하는 「역사편」을 들 수 있다. 특히 「교시편」에서는 눈이 만들어내는 생리적 색채, 광선의 굴절에 기인하는 물리적 색채, 물체의 속성에 해당하는 화학적 색채, 그리고 감각적 정신적 작용으로써의 색채의 영역 등 4가지의 색채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괴테의 4가지 색채론 제안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색채현상을 다루는 기본적인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다. 괴테의 색채론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근대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뉴턴이 제안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결과에 대해, 감성론적 색채론, 즉 감각 및 지각을 주제로 한 색채현상을 「감성학(感性學)」으로서 정립한 데 있다.

뉴턴과 대립되는 색채론 즉, 프리즘을 통한 빛은 굴절, 분해되어 색채가 생겨난다는 물리적 색채현상을 정면으로 충돌한, 괴테의 감성으로서의 색채현상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괴테는 『색채론』의 서문에서 “색채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작용, 이것의 능동적인 작용과 수동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 “색채는 눈이라고 하는 감각에 대한 자연의 규칙적인 현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괴테적 관점은 색채가 광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경계, 밝음과 어둠의 박명, 투명과 불투명의 접촉, 물체와 공간의 작용에 대한 눈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3. 괴테 색채론의 영향

‘색채는 무엇인가?’라는 과학적, 학문적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색채현상의 생성에 대한 많은 지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색채현상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턴 이래 색채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괴테마저, ‘투우는 붉은 천을 펼쳐 보이는 것만으로 난 폭하게 군다. 하지만 철학자는 색채를 화제로 삼는 것만으로도 흥분하고 이성을 잃는다’라고 논할 정도로, 색채현상에 대한 정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색채의 심리적, 생리적, 그리고 교육적 측면을 벗어나 괴테이후 지속된 색채론의 주요한 성과를 추적하고자 세 철학자의 색채에 대한 사고를 검토하고, 괴테의 색채론과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3.1 헤겔의 색채론

아직 헤겔의 색채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헤겔은 괴테의 색채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뉴턴의 『광학』을 비판하고, ‘빛과 어둠의 상호대립작용으로 색채가 생성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괴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헤겔은 괴테가 색채론을 집필하고 있던 1801년 10월 21일, 괴테와 조우한다. 헤겔의 괴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1803년부터 1806년에 걸친 그의 메모에 나타난 괴테의 색채론을 실험한 기록에 나타나 있다.

헤겔이 색채와 관련하여 발표한 논문으로는 『차이논문』(1801), 『정신현상학』(1807), 그리고 1801년과 1804년의 강의 초안으로 사용한 원고인 『자연철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논문에서 괴테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차이논문』(1801)에서는 오성과 이성을 통한 색채이념을, 그리고 『정신현상학』(1807)에서는 의식과 초감성적세계와 상호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색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연철학』(1801, 1804)에서도 괴테의 영향으로 색채를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논하고 있다. 먼저, 『정신현상학』(1807)에 나

타난 색채사고를 고찰하기로 한다.

의식은 정신 개념으로 자기의식의 전환점에 서서, 감성적 현실세계의 여러 가지 색의 가상으로부터, 또한 초감성적 피안의 공허한 밤으로부터 현재라고 하는 정신의 한낱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小島 2003, 필자역)

여기서 헤겔의 의식을 색채와의 관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회다’라고 하는 것은 ‘회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데, 이는 ‘이것은 ~이다’라고 하는 감각적 확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 ‘소금은 회다’라든가 ‘소금은 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다양한 성질로, 앞서 논한 ‘이것은 ~이다’라는 감각적 확신과는 다른 차원이다. 바꿔 말하면, 감각적으로 ‘흰 것’과, 성질로서 ‘흰 것’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성질로서 ‘흰 것’에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금은 회다’라고 할 때, ‘회다’는 소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기도 하지만, ‘설탕도 회다’라는 의미를 통하여, 공통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모순되는 것은 ‘회다’라는 색채가 갖는 동일한 의식이, 한편으로는 고유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특질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소금이 갖는 다른 성질, 즉 ‘소금은 짜다’라든가 ‘소금은 육방체이다’라고 하는 성질을 동시에 의식함으로써,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와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나아가 지각하게 된다. 여기서 ‘소금은 회다’라고 할 때, 오르지 눈을 통한 ‘시각’은 ‘하나’의 신체로 지각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는 ‘회다’(시각) 이외에 ‘짜다’(미각), ‘모가 나있다’(촉각)라고 하는 다양성이, 하나의 통일된 ‘소금’이라는 물체로써 의식을 통한 지각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의식을 넘어, 순수한 사상만을 의식의 대상으로 하는 것, 즉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접근이다. 이것은 힘의 개념을 사고과정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감각적 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내적인 것’, 즉 감각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된 순수한 사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논한 ‘공허한 밤’이라든가 ‘정신의 한낱’이라는 말에서 ‘공허’와 ‘한낱’에는 감각적이고 물리적으로 ‘회다’라기 보다는 초감각적으로 ‘회다’라

는 사상적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을 통한 색채의 지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되게 되는데, 이는 어둠과 관련한 빛의 내면적 속성에서 색채현상을 논한 괴테의 영향이다. 헤겔은 『자연철학』(「물리학(빛)」)에서, 빛과 어둠의 관계를 통한 괴테적 색채현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색채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빛과 어둠이 색채를 하나로 만드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뉴튼이 색채에 있어서 도입한 빛의 분할, 즉 관념적이고 반성적 분할을, 괴테는 이런 양적 분할을 바꾸었다. (생략) 빛은 어둠과의 대립으로, 다시 빛과 어둠의 통합으로 단일한 형태로서 인식된다.(小島 2003, 필자역)

이러한 헤겔의 사고는 빛과 어둠의 분할과 결합의 반복으로부터 생성되는 괴테의 자연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즉, 헤겔은 자연물인 ‘식물이나 꽃 자체는 외부로부터 충분히 빛을 받아, 외부를 향하여 분열이 이루어진다’라는 과정은 외부로부터의 빛과 식물 내부의 어둠이라는 작용을 통하여 색채가 생성된다는 괴테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지구상의 어떤 개체는 공기, 빛, 불, 물의 통일체로서, 이러한 4요소가 물체의 속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빛은 공기에 순응하고 물체의 어둠 안에서 특수하고 개성적인 흐릿함이 생성되는 것이 색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색채를 하나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색채는 한편으론 물체로서의 개체에 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개체로서 물체 밖에 부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여,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실재를 갖추지 않은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빛과 비물질적인 어둠과의 관계로 생기는 환상, 즉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색채는 어떤 의미에서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 눈의 염출(捻出)에 의한 것, 눈에 생긴 명암의 작용과 그것의 관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長谷川 2005, 필자역)

헤겔이 ‘개체와 빛의 관계로 다양한 변화가 생길 때 색채가 나타난다’라고 한 것은, 개체가 갖고 있는 내부의 어둠과 밖의 빛의 작용으로 개체의 경계에 색채가 생성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색채라고 하는 것은 명암(明暗)의 2개의 요소가 별개인 것처럼, 하나로 통합되는 것과 같은 결합관계를 갖고 있다”, “흰색과 검정의 양극단 사이에 색채가 있

고, 빛과 어둠의 결합—그러나 독특한 결합—에 의해 비로소 색채가 발생한다”라는 주장 등으로부터 헤겔의 색채사상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헤겔의 색채사상은 초기에는 의식적인 접근에 머물렀지만, 괴테의 영향으로 보다 구체적인 색채사상으로 발전한다. 괴테가 뉴턴의 색채이론을 비난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헤겔 또한 뉴턴의 프리즘을 통한 색채이론을 “마치 깨끗한 물이 마치 7가지의 흙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야만적인 생각은 비난받아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괴테 이상으로 뉴턴을 비난한 바 있다.

3.2 쇼펜하우어의 색채론

쇼펜하우어의 색채론은 괴테의 색채론에 가려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재인식의 움직임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마찬가지로 괴테를 접하면서 색채론에 관심을 갖게 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괴테는 1810년에 『색채론』을 발표하였는데, 1813년경부터 수년에 걸쳐 쇼펜하우어와 색채에 관하여 공동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쇼펜하우어는 괴테의 색채론 분석을 거쳐 자기 나름의 색채론을 집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각과 색채에 관해서』(1816)이다.

쇼펜하우어는 『시각과 색채에 관해서』(1816)의 「머리말(2판)」에서 색채론을 쓰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작은 논문은 오로지 철학에 몰두하는 독자에게도 결코 쓸데없는 논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색채의 완전한 주관적인 본질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이를 확신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인식의 주관적, 지적 형식에 관한 칸트의 이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적절한 철학입문서가 될 수 있다. (生松外 1975, 필자역)

이와 같은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가 색채관련 서적으로서보다는 철학서로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쇼펜하우어가 칸트철학을 의식하면서, 실제로는 괴테의 『색채론』을 배경으로 저술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면도 있다. 괴테의 『색채론』 영향은 『시각과 색채에 관해서』(1816)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에 쓴 『의지

와 표상으로서의 세계』(1819), 『자연에 있어서의 의지에 관하여』(1836), 그리고 『부수입과 보상』(1851)에서도 색채, 빛, 시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색채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이제까지의 쇼펜하우어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쇼펜하우어는 『시각과 색채에 관해서』(1816)에서, 특히 괴테의 색채론 개념 중에서 「생리적 색채」만을 주제로 삼아, 생리적인 측면은 물론, 심리학적 측면까지 확대하여 접근하였다. 색채인식에 대해서 “색채는 대상자체에 귀속되는 성질이 아니고,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눈의 망막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논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의 8절에서 뉴턴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피력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뉴턴에 대해 “그는 눈에서 찾아야 할 것을 빛에서 찾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우리들은 분할된 광선 대신에 분할된 망막활동과 조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색채의 생성을 빛이 아닌 망막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색채에 관한 나(쇼펜하우어를 가리킴)의 이론과 뉴턴이론과의 다른 점은 어디에 있는가? 뉴턴은 모든 색채를 다만 7가지 동질의 광선이 숨겨진 질로 간주하고, 여기에 각각의 이름만 붙이고 방치했기 때문에, 색채 각각의 특성의 차이라든가 고유한 효과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버렸다. 그런데 나의 이론은 색채 각각의 특성을 해명하고, 각각의 색채가 부여하는 특수한 인상과 특별한 효과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색채가 확실히 결정된 분수로 나타나는 망막활동의 일부분이고, 게다가 망막의 분할에 적합하게, 플러스 측에 있든가 마이너스 측에 있든가를 인식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생략) 나의 이론은 ‘색채라고 하는 것은 망막의 질적으로 분할된 활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生松外 1975, 필자역)

쇼펜하우어 연구자인 사카이 쓰요시(酒井剛)는 쇼펜하우어의 색채론을 「초월론적 색채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 쇼펜하우어의 색채론이 『시각과 색채에 관해서』(1816)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후의 저서를 통하여 기존의 「생리적 색채론」을 부정하고, 괴테의 「생리적 색채론」을 발전시켜, 칸트적 철학사상에 접근한 「색채 카테고리론」과 「구상력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색채가 망막의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현상’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색채사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색채론을 벗어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념—자아(세계는 나의 표상)인 나, 대상을 인식하는 나—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자아는 자기 자신의 신체와의 동일성을 지탱하는 신체적 자아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체적 자아는 표상경험에 앞서, 그것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언이다. 예를 들면, 「본다」라고 하는 경험은 눈이라고 하는 신체성을 전제로 하고, 「접촉한다」라고 하는 경험은 손이라고 하는 신체성을 전제로 한다.(酒井 2006, 필자역)

사카이는 이와 같은 쇼펜하우어의 자아의 문제를 경험에 앞선 초월론적 인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칸트철학의 선형적 인식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쇼펜하우어가 “색채는 망막의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한 것은 색채라고 하는 대상인식은 색채가 주관을 규정함으로서가 아니라, 역으로 주관이 색채를 자발적으로 구성함으로서 생기는 현상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색채는 대상의 성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체적 자아(망막)로부터 생겨난 결과라고 보는 인식이다.

괴테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쇼펜하우어의 색채연구는 쇼펜하우어가 괴테의 색채론을 비판하게 되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쓴 색채론 초안을 괴테에게 보내 평가받기를 원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비트겐슈타인의 색채론

철학자겸 색채론자인 비트겐슈타인 (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은 앞의 두 철학자와 다른 일면을 갖고 있다. 즉 색채에 관한 헤겔의 대상적 사고나 쇼펜하우어의 망막 활동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언어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색채 개념을 규명하려 하였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 색채서는 독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저서로 정평이 나 있다.

비트겐슈타인도 앞에서 논한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괴테의 『색채론』을 접하고부터 색채연구를 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작고 직전

인 1945년부터 1951년까지, 무려 6년 동안 괴테의 『색채론』을 읽고 감명을 받아, 색채에 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다. 당시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원고를 제자인 안스콤베(G.E.M. Anscombe)가 편집하여 출판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색채에 관하여』(1977)이다. 당시까지 예술활동에서 주요 관심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나 비트겐슈타인의 등장은 예술에 대한 비평의 의미나 개념 분석이 주요 관심사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류였던 비트겐슈타인이 말년에 괴테의 색채론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와 수학의 다양한 문제를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과의 토론을 거쳐 발표한 것이 『논리철학논고』(1922)이다. 이 책이 비트겐슈타인이 생전에 출판된 처음이자 마지막 저서이며, 나머지는 제자들이 그의 원고를 재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대표적인 저서로 『철학적 고찰』(1930), 『청색본』(1935) 등이 있다. 특히하게도 그의 대부분의 저서에 색채라는 어휘가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의 『색채에 관하여』(1977)는 말년에 지은 논리서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색채에 관하여』(1977)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비트겐슈타인 스스로 원고를 수정, 가필한 것이고, 2장과 3장은 비트겐슈타인이 메모한 내용을 연대순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이 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초기에 쓰인 시기, 순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1장이 정리되었는가 등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의 문헌적 고찰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문헌적 고찰을 피하고 비트겐슈타인의 색채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1922)에서 색채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언어로 위치짓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진리개념을 설명하는 하나의 상, 흰 종이 위의 검은 무늬. 평면상의 점 각각에 관해서 검은색인가 흰색인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무늬의 형을 기술할 수 있다. 점이 검다고 하는 사실은 정(正), 회다(검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負)라고 하는 사실에 대응한다. 평면상의 점(브뢰케적인 진리가치)을 가리키는 것은 판단이전의 가정에 대응한다, 등등. 그러나 점이 회다 혹은 검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 점이 검다 혹은 회다고 불리던 것을 알아야 한다. (木村 1997, 필자역)

즉, 이 책에서 그는 색채의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회다’라고 확증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색채가 갖는 시간, 위치, 밝음과 어둠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언어의 문제—언어게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그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의 외적 성질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내적 성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정하였다. ‘내적’ 혹은 ‘외적’이라고 하는 언어내지는 의미가 비트겐슈타인의 모든 연구의 주요한 명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명제는 비트겐슈타인이 마지막에 쓴 『색채에 관하여』(1977)의 의미 전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는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떤 언어게임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보다 밝다든가 어둡다든가에 관한 얘기이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또 다른 언어게임이 있다. 특정한 색의 밝기에 관해서 논한다는 것이다. (2개의 막대기의 길고 짧은 관계를 규정하는 것과 2개의 숫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2개의 언어게임과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개의 언어게임에서 명제 형식은 ‘X는 Y보다 밝다’라고 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전자(2개의 막대기)는 X와 Y와의 관계가 외적 관계이고, 그 명제는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 후자(2개의 숫자)는 X와 Y와의 관계가 내적관계이고, 그 명제는 무시간적인 것이다. (村田 2001, 필자역)

비트겐슈타인은 ‘X는 Y보다 밝다’라는 표현에서 X와 Y는 전혀 다른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적’ 혹은 ‘외적’이라고 하는 구별로, 외적관계를 자연과학적 범칙에 의한 경험적 관계로 본다면, 내적관계는 개념적 관계로 보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중기이후 내적관계 대신에 문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는 색채현상이 하나의 색채가 단독으로 성립되지 않고, 다른 색채와의 내적, 본질적 관계로서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색채론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4. 철학자의 색채론 비교분석

뉴턴의 『광학』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괴테의 색채론 연구는 뉴턴과의 대립적 측면보다는 색채

현상이 다양하다는 내면적 속성을 밝히는데 공헌하였다고 생각된다. 괴테로 인한 색채의 감각적 현상으로서의 전이는 괴테이후 철학자에게 색채를 사상적 전통으로 위치 지으려는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예로 든 철학자로서 헤겔, 쇼펜하우어, 비트겐슈타인의 색채론은 모두 괴테의 색채론 연구를 통해 그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기 나름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철학자로서 평가할 수 있다.

헤겔은 색채를 대상에 대한 의식의 지각에서, 이항 대립적 요소, 예를 들면, 빛과 어둠, 낮과 밤의 경계 상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철학적 접근으로 의식과 이성을,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넘는 사상으로서의 초감성적 세계와 상호관련지어 분석하였다. 헤겔의 괴테와의 조우는 현상적 세계의 의식적 경험을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단계에서, 색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헤겔의 색채론에 비하여, 쇼펜하우어의 색채는 망막의 활동에 비유하여 접근한 것으로, 헤겔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해석이었다면, 쇼펜하우어는 괴테의 영향으로 실험과정을 거쳐 색채현상을 규명하려 한 점에서 그와 다르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쇼펜하우어의 색채론은 “색채는 망막의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즉 색채가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체적 자아(망막)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괴테가 색채를 감각적 현상으로 규정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괴테와의 공동 연구를 부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헤겔과 쇼펜하우어에 이어, 비트겐슈타인의 색채론은 두 철학자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헤겔이 이원론적 색채론적 접근을, 쇼펜하우어가 망막의 활동을 색채현상의 발생요인으로 인식한데 비하여, 비트겐슈타인은 색채현상을 논리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비트겐슈타인은 색채를 내적, 외적 관계를 통하려 규명하려 한 것이다.

5. 결 론

이상, ‘색채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뉴턴이 광학이론을 통하여 색채는 빛의 분할로 생기는 현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괴테는 색채가 빛의 분할로서가 아니라, 눈의 감각적인 현상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주장하여, 이후 다양한 분야에

서 색채를 과학이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철학자는 ‘색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괴테는 물론 그의 영향을 받은 세 철학자의 철학서와 논문을 통하여 이들의 색채사상을 고찰하였다. 세 철학자 모두 괴테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색채는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개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괴테가 감각으로 규정한데 비하여, 헤겔은 이원론적 접근에서 색채현상을 정의하였고, 쇼펜하우어는 괴테적 감각이 아닌 망막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현상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논리적 입장에서 이를 언어게임, 문법 등의 언어로 접근하여, 앞의 두 철학자의 현상적, 실험적 접근과는 다른 차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철학자의 색채사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게재신청날짜: 2012.04.10 게재확정날짜: 2012.05.20>

참고문헌

- 괴테(1810), **색채론**, 장희창역(2003), 민음사
- 장희창(2006), 괴테 「**색채론**」의 구조와 그 현대적 의미, 한국괴테학회
- 이윤민(2007), 시각 문화적 관점에서 본 괴테의 **색채론**, 한국색채학회
- 최재석(2008), 괴테의 「**색채론**」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 게테, 木村直司 外 譯, **게테全集 14**. 株式會社潮出版社, 1980(**Goethe's colour theory**, translated by Herb Arch, Studio, Vista:London(1971) pp.23-24, pp.306-314
- Ludwig Wittgenstein, **Remarks on Colour**, trans, G.E.M.Anscombe, Oxford, 1977 (ワイト겐슈타イン, ルードヴィッヒ, **色彩について**, 中村 昇訳,

新書館, 1997)

- Paul.F.H.Lauxtermann(2000),**Schopenhauer's broken world-view: colour and ethics between Kant and Goethe**,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Publishers
- C.L.Hardin, **color for philosophers**, Indianapolis, Hackett, 1988
- G.W.F.ヘーゲル, **自然哲学**, 長谷川宏訳(2005), pp.253-279
- ヴィトゲンシュタイン,ルードヴィッヒ, **論理哲学論考**, 木村洋平訳(2007), 社会評論社
- 金子隆芳(1996), 色彩の心理學, 岩波新書
- ショーペンハウアー全集1(視覚と色彩について), 生松敬三外訳(1975), 白水社, pp.266-269
- リュデイガーザランスキー, ショーペンハウアー, 山本尤訳(1990), 法政大学出版局
- 飯田隆(2001),**ヴィトゲンシュタインとゲーテ的伝統, ゲーテと自然科学**
- 村田純一(2001),**色彩の多次元性, ヴィトゲンシュタインとゲーテ, ゲーテと自然科学**, pp.159-164
- 桑川麻里生(2001),**ファウストとしてのヴィトゲンシュタイン, ゲーテと自然科学**
- 酒井剛(2006), **ショーペンハウアーの超越論的色彩論**, 理想(第676号), pp.113-122
- 小島優子(2003), **ゲーテ色彩論のヘーゲルの影響**, 上哲学誌, 上智大学大学院哲学研究科, pp.25-29
- 石塚正英(2005),**関係論としての色彩論** (ニュートン・ゲーテ・ヴィトゲンシュタイン) 東京電氣大学 (総合文化研究, 第3号)
- 河本英夫(1998),**色彩と光** (ゲーテとヴィトゲンシュタイン), 現代思想(26), 青土社

Philosophical Approach of Color after Goethe

- Focusing on the Color Thought of Hegel, Schopenhauer, and Wittgenstein -

Choi Jaesuk*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Halla University

Since ancient times, it has been a complex question for philosophers 'What is color?'. They defined the concept of color in their books and composed themselves the book on color. But they could not come to a decisive conclusion as to what color truly is. The idea of discussing what is color, is very difficult. Beginning in the modern times, Isaac Newton(1642-1727) described in his book 'Optics(1704)' that light is color. The theory of Newton was an important event on the long time problem of color.

However, Goethe criticized Newton's Theory of Optics. After 100 years, Goethe wrote 'Theory of Colours'(1810). This was the result gained from the basis of human sense and natural survey beyond the experimental physics at that time. Goethe insisted on color is sense, not the color. The Goethe's sense concept on color came into a head-on collision with Newton's Theory of Optics. Goethe's theory of color had an effect on researchers, philosophers, psychologists as well as modern and contemporary painters. In particular, Goethe's theory of color enlightened philosopher's interest in color and composed the writing of the books of color themselves. This clearly means that Goethe's Theory of Color had affected many philosophers on color. Among these philosophers are Hegel, Schopenhauer, and Wittgenstein. Each affected Goethe's theory of color, but showed different concepts on color in each of their theori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propose to seek out the theories of color by each of the philosophers.

Key-words: Color, Philosopher, Newton, Goethe, Hegel, Schopenhauer, Wittgenstein